



[산업] 삼성전자 '갤S10' 체험마케팅 후끈 06



Life

[라이프] 신라면세점·호텔 해외서도 인정받아 L2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 “4등급 차량도 운행제한을”



3일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용성 높지만 대기오염 배출 줄이는데 한계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내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차량과 적용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공해차

량 운행제한 제도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만 운행에 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 부문 총배출량과 비교해 4.4%, 이산화탄소는 1.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에 제한할 경우 PM-2.5는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공공의사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는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시민 저항, 낮은 참여율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구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기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5등급과 4~5등급으로 구분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5등급만 운행에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운행제

한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총 23만5925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7.6%에 해당한다.

4~5등급의 운행에 제한하면 배출량 감축 효과가 높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이 일부 포함돼 정책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시내 등록 차량의 16.7%인 51만8842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3~5등급 운행에 금지할 경우 배출량 감축 효과가 극대화됐지만, 제도 수용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유차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미만 차량도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50.8%인 158만1028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검토 결과 4~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감축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났다”며 “하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의 17%가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행하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英 LED 조명기업 GDS, 수원에 공장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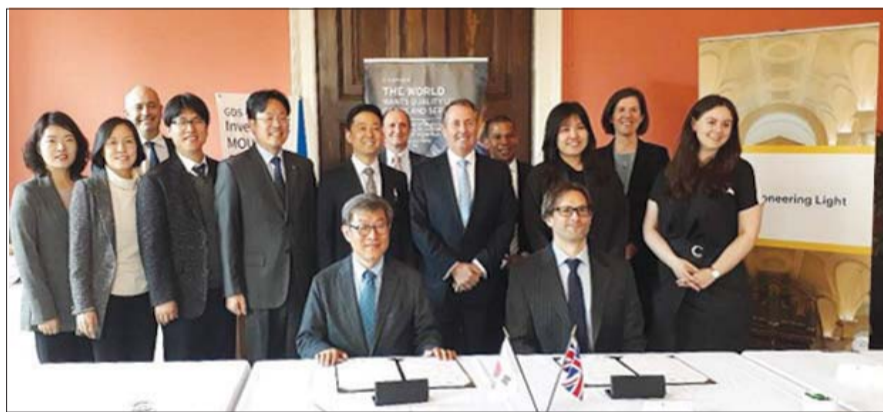
수원시 광고에 200만 달러 투자

고급 LED 객석조명을 만드는 영국 GDS(Global Design Solutions)가 수원시 광고에 200만 달러 규모의 공연용 조명기기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GDS 리처드 커스버트 대표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영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국제통상부 남서부지역 본부에서 투자협약에 서명했다.

GDS는 2004년 설립된 영국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런던 웹블리 아레나,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700여개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등에 고급조명 시스템을 설치했다.

경기도와는 2016년 GDS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도는 수원 광고 유럽 비즈니스센터에 GDS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부품생산 협력업체로 도내 중소기업에 연계해 왔다. GDS는 최근 한국 공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경기도에 제조 생산 공장을 결정할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앞줄 왼쪽)과 GDS 리처드 커스버트 대표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영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국제통상부 남서부지역본부 본사에서 투자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것으로 알려졌다.

GDS는 현재 도내 20여개 중소기업과 부품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조명기기 부품의 약 50%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영국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해 공급 중이던 조명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 제품 역수출을 기

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GDS 수원공장 설립으로 신규 고용은 52명,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리처드 커스버트 GDS 대표는 “브렉시트로 영국 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한국투자자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시민 돌봄서비스 직접 챙긴다

돌봄전담기관 ‘사회서비스원’ 출범 원장으로 주진우 선임연구위원 선임

서울시가 시민의 돌봄을 직접 책임진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돌봄전담기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는 등 출범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오는 11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는 직원 채용과 서비스 준비 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겼던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등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공모를 거쳐 원장과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 등이 선임됐다.

이사회는 원장 1명과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 당연직 이사 2명, 당연직 감사 1명, 근로자 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특보와 노동보좌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 선임됐다. 감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법인 감사로 활동하고 인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맡는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1287명 선정

대출·환율·주차 등 우대

서울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3만1287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입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추천한 194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668만6000명의 3.5%인 23만1287명이다. 이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1만3834명(6%)에 이른다고 시는 전했다.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000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000명(44.1%)이며,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2000명

(5.3%)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때 5%의 가산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현정 기자

마닐라, 서울 ‘스마트도시’ 노하우 배워간다

스마트 교통정책 핵심노하우 전수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파시그시가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노하우를 배워간다.

서울시는 4~6일 파그니시 관계자들이 방한해 서울시의 행정기술과 설비를 배워간다고 3일 밝혔다.

방문단은 서울시 초고속망운영센터와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견학한다. 지하철터널을 이용한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과

지능형 사이버보안체계 등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경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은 지하철터널을 이용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광통신망이다.

이들은 강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재난·범죄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한다. 시는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등 서울시의 스마트 교통정책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김현정 기자